

금호, 타이어 · 합성고무 덕 “톡톡”

2004년 순이익 무려 685.15% 증가 … 삼성그룹이 전체의 24% 차지

2004년 삼성을 포함한 국내 재벌그룹(상호출자제한집단)들은 20%에 가까운 매출 성장과 50% 이상의 이익 증가를 기록하며 전체 상장기업의 경영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.

증권선물거래소와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, 삼성을 비롯해 LG, 현대자동차, SK, 한진, 롯데, 한화, 현대중공업, 금호아시아나, 두산 등 10개 그룹의 2004년 총 매출은 288조3483억원으로 전년대비 19.21%, 순이익은 26조8171억원으로 56.02% 증가 했다.

평균 부채비율도 107.78%로 1년 전보다 10.12%p 낮아졌다.

삼성의 총 매출은 89조1918억원으로 25.39% 늘어 10개 그룹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순이익 역시 12조721억원으로 77.58% 급증했다.

삼성그룹의 2004년 매출과 순이익은 12월 결산 상장기업 전체 매출의 14.66%, 순이익의 24.37%에 해당하는 것이다.

외형성장은 LG그룹과 롯데그룹도 두각을 나타냈는데, LG그룹의 2004년 매출은 50조4067억원으로 23.66%, 롯데그룹은 6조3399억원으로 22.27% 증가했다.

한진과 금호아시아나, 두산그룹은 수익 성장이 두드러졌다.

한진그룹은 2003년 241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던 대한항공이 2004년 4867억원의 흑자로 돌아선데 힘입어 전체 순이익이 984억원에서 1조1900억원으로 무려 1108.77% 급증했다.

금호아시아나 역시 금호산업, 금호석유화학 등 계열사들의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개선에 힘입어 전체 순이익이 685.18% 증가한 2720억원에 달했다.

두산도 순이익이 163.71%, 한화는 131.83% 증가했다.

<화학저널 2005/04/07>